

‘물폭탄’ 광주·전남에 274mm 폭우... 농경지·상가 등 피해 속출

함평군 일대 밤사이 시간당 71.5mm 비
 수문 개방 60대 주민 하천 휩쓸려 실종
 나들목 유실·정전에 농경지 486ha 침수



(사진 왼쪽) 28일 오전 광주 동구 소태동 한 사찰 지붕 위로 폭우에 못이긴 소나무가 쓰러져 있다.
 (사진 가운데) 28일 오전 광주 북구 영산강변 첨단대교 인근 수변이 강물에 잠겨 있다.
 (사진 오른쪽) 28일 전남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일대 농경지가 흙탕물에 잠겨 있다.

광주·전남에 이틀 동안 최대 274.6mm의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다. 시간당 71.5mm의 강한 비로 주민 1명이 실종되고, 도농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28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정오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광주 274.6mm, 담양 봉산 217mm, 화순 북면 207.5mm, 보성 197.9mm, 함평 196mm, 나주 185.5mm, 곡성 184.5mm, 여수 170.4mm다.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함평 71.5mm(27일 오후 9시 4분~10시 4분), 광주 서구 풍암동 56.5mm(27일 오후 9시 43분~10시 43분), 고흥 도화 55.5mm(28일 오전 2시 19분~3시 19분)를 기록했다. 급류로 실종자가 나왔고, 주민들이 임시 거처로 옮겨졌다. 27일 오후 10시 32분께 함평군 엄다면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중이다. 이 여성은 폭우로 불어난

하천의 수문을 열려다가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북구 석곡동 석곡천 제방 50m가량이 불어난 물에 유실돼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가 복귀했다. 이날 오전 3시 40분께 광주 동구 증심천교가 범람할 우려가 있다 일대 6가구 12명이 친척 집 등으로 대피했다. 이날 오전 2시 53분께 광주 동구 소태동 한 마을 나무가 쓰러져 5가구 주민 12명이 안전지대로 이동했다. 전날 오후 11시께 곡성군 죽곡면 산 쪽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방 당국에 의해 안전지대로 옮겨졌다. 폭우로 공공·사유 시설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6시 32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뒤편 옹벽이 무너져 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 제2순환고속도로 각하 나들목 진출입

구간 경사면 일부 토사가 유실돼 응급 복구 중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공구 정거장도 침수됐다. 하수관거 누수로 관로가 이탈했고, 인도 일부 구간이 내려앉으면서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광주 동구 조선대 치과대학 앞 도로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주택·상가·숙박업소·전통시장 가게 등지에도 물이 차올라 배수 작업이 이어졌다. 정전과 농경지 침수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1시부터 1시 53분 사이 광주 동구 계림동 공동주택 2곳에서도 정전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

27일 오후 11시 43분께 나주 부덕동·세지면 일대 주택 154가구가 낙뢰로 정전이 발생했으나 응급 복구됐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공동주택 30가구와 상가에서 변압기 낙뢰 화재로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2시간 30분만에 복구됐다. 함평 월야면 계림1리 한 마을도 정전됐다. 나주에선 14개 읍·면·동 농경지 486ha가 물에 잠겼다. 함평·곡성에서도 농경지 피해 신고를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에서는 어선 2척과 주택 8곳이 침수됐고, 여수·고흥·나주에서도 도로·주택·시설물

침수와 통신 장비 파손이 이어졌다. 광주·전남 소방에는 호우 피해 신고 185건·102건(안전 조치 포함)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도는 호우 피해 상황 파악과 복구 작업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남부지방에 내린 장맛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28일에는 중부지방과 29일에는 남부와 제주도 곳곳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28일부터 29일까지 전남과 제주도에 많은 곳은 25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등 내륙 지역에는 150mm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슬비기자

이낙연 컴백·신당 창당·물갈이론 호남 정가 ‘술렁’



제22대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역 물갈이론이 드센 가운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귀국과 정치재개, 양향자·금태섭 발(發) 신당창당, 진보진영의 제3지대론 등이 숨가쁘게 이어지면서 지역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28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4선 의원에 전남지사,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년 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지난 24일 귀국하면서 고향이

자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중심으로 총선을 겨냥한 세력 결집과 확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에 복귀하며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민주당의 전신)의 상징색인 청록색 베타이를 맨 채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입국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뭇다른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정치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당분간 외교·안보 강연과 정책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총선까지 9개월 남짓, 당내 경선까지는 7개월 밖에 남지 않아 광주·전남을 주축으로 세 규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강성지지층의 팬덤문화와 이른바 ‘수박 프레임’, 진이재명계와의 화학적 결합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의 신경

이낙연, 사실상 정계 복귀... ‘팬덤’·당내 화학적 결합 관건

‘중도 표방’ 금태섭·양향자 신당 기지개... 파급력 관심사

민 전 의원은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일부 유튜브와 저질 정치인의 결합은 우리정치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고, 입을 막고 손발까지 묶고 있다”며 “당도, 국가도 국민을 보고, 국민과 함께 정의의 방향으로 가야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의도 정가의 화두로 떠오른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지역 정가로까지 파장이 미칠 지도 관심사다. 우선, 지난 4월 제3지대론을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창당 준비모임인 ‘성찰과 모색’이 다음달 4일 광주에서 지역 첫 토론회를 연다. ‘광주시민회의’ 초청으로, ‘시민참여정치를 준비하는 광주전남민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호남에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인지 논의를 계획했다. 일부 총선 입지자들

움직임도 또 다른 제3지대 텐트를 구축할 지 지켜볼 일이다.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해체모여식 이합집산의 성공 가능성과 파괴력을 두르는 여러 전망과 해석이 나온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거대 양당 간 대결정치에 대한 피로감으로 무당층이 두터워진데다 정치 불신 탓에 제3지대를 찾는 이들도 적잖아 파급력이 의외로 상당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주영·문국현·안철수로 이어지는 제3지대 잔혹사와 수면 위 세력들의 면면과 기반을 감안할 때 “찾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선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현역 물갈이론이 이번에도 드셀 전망이어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지역 정가가 더욱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변용일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